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월요기도모임 기도제목(2022.6.6)

주일>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대상으로 구호와 성경을 배달하는 사역 활동으로 북한에 긴급 사태 발생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란 나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선을 넘나들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 거동이 불편해서 피란길에 오르지 못하고 고향에 남아 있는 할머니, 기억에 자꾸만 떠오르는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의 잔상,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난민 대피소에 겨우 도착한 우크라이나인 피란민의 고통이 대화 도중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복음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에서 직접 발로 뚫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매뉴얼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회에서 실시해 온 재난 구조 훈련을 수료한 9 명의 요원들과 본회 일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촌이 있는 루마니아로 재난 구호 활동을 다녀와서의 고백입니다.

나훔 3 장 14 절에 “너는 포위당할 것에 대비하여 물을 끌어 놓고 너의 성채들을 튼튼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권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37년동안 북한선교를 감당해온 모퉁이돌선교회로 “통일, 내가 이를 것이니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세계교회가 함께 참여해 복음통일의 매뉴얼까지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재난 구조 훈련을 수료한 동역자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피난민들과 교회를 돕는 구호와 성경을 배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북한의 긴급 상황 시 발생할 여러 돌발 상황들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의 문을 열 때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 미얀마 만화 성경 9 천 6 백 권이 00 지역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미얀마 현지 일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보낸 9,600 권의 미얀마 만화 성경이 00 지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 엄청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배달을 담당한 일꾼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미얀마 현지의 수많은 성도와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시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미얀마에 만화 성경을 보내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화 성경을 받아서 읽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나아가 미얀마와 주변 국가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1 장 16-17 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하다 복음에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하신 말씀으로 미얀마에 다량의 성경이 배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군부통치와 시위로 고통받는 미얀마 어린이와 영혼들에게 만화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복음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을 보급하는 일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성경 배달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요일> 소수민족 사역자를 세우는 신학교 2 곳에서 매달 신학교가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0 신학교는 6년 동안 1년 과정으로 매달 1주일씩 공부ja 계속되고 있습니다. 00 소수민족 교회의 사역자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00 신학교는 작년 3개 소수민족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기가 졸업했고, 매달 1주일 과정의 집중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장소에서 성경해석학을 기초로 4복음서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는데 지도자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주 강사는 싱가포르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00 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소수민족 사역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5 절에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으로 신학교 배달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감시와 통제가 극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수민족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열정을 부으시고, 이들을 통해 신학교 사역이 지속되어 지도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일꾼들로 세워가심을 찬양합니다. 감시가 날로 더해지는 상황에서 신학교가 진행되는 장소와 일꾼들 그리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강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소수민족과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선교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요일> 북한에 의약품이 전달될 길이 열려 더 이상 어린이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전달되는 통로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전염병에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사망했는데 영양 상태도 안 좋았던 데다 어른 약을 처방해준 이유 때문입니다. 3 군단 지휘부 소속 군인의 두 살짜리 딸이 고열 증세로 성인용 해열제와 수면제 소량을 처방받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아이 약이 아닌 걸 먹인 것이 원인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19 사망자의 상당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피해자가 어린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서 4 장 2~4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의지하여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의약품,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약이 부족하여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길을 열어 주사 외부 지원이 막혀 있는 상황이 변화되고, 닫힌 문이 개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전도할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땅의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목요일> 북한 혜산시에 봉쇄 완화로 생필품 구입 위한 출입을 허용한 통로로 지하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전해지게 하소서!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봉쇄 완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면 봉쇄 10 일 만이다. 그동안 집 밖 출입이 금지돼 전염병 의심 환자들이 약을 쓰지 못하고, 식량 부족으로 쓰러지는 세대도 속출해, 결국 '24 일 아침부터 식량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해 동네 주변은 다녀도 된다'는 지시가 주민에게 하달된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 장 6~7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전면 봉쇄 카드로 대응 중인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혜산시 봉쇄가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돼 주민 고통이 덜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을 통해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와 영생 얻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 북한의 7차 핵 실험이 중단되고, 북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실험 준비 최종단계 격인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는 미국 핵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갭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군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 편 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핵과 미사일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독재정권 세습, 김씨 일가 우상화, 체제 유지 등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악한 도모가 무산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남북이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토요일>잘못을 미화하는 악습이 중단되고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살아나며 말씀이 흥황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 사태는 북한 지도부가 집단 생활이 코로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4.15, 4.25, 열병식 등의 정치 행사를 강행한 데서 초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지도부는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아래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최고 지도부가 당연히 해야 할 대책회의나 현지 요해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요란하게 칭송하며 코로나 극복 과제를 보건 부문 종사자와 전체 주민에게 떠넘기고 집단주의 미풍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대한 교훈을 얻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니” 잠언 1 장 2~4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 지도부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사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의 고통을 배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억압 아래 탄식하는 주민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